

사회적지원, 부부갈등,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와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간 경로분석

김종한^{1*}

¹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A Path Analysis of Social support, Marital conflict, Self-efficacy,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i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of infants

Kim, Jong-Han^{1*}

¹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JoongB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원, 부부갈등, 자기효능감, 그리고 양육스트레스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들 변인이 양육행동에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했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아동패널연구: 2009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대상자는 11~18개월의 영아 1,467명(남아 739명, 여아 728명)의 어머니이고, 연구방법으로 양육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원, 부부갈등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했으며, 이들 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양육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원, 부부갈등과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사회적지원, 자기효능감이 정적 상관($p < .01$)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p < .01$)이 있었다. 둘째, 양육행동에 대한 이들 변인들의 중다상관계수는 .533으로써 양육행동 변량의 28.4%를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 양육스트레스($\beta = -.396$)가 가장 많은 변량을 설명하고, 다음으로는 사회적지원($\beta = .223$)이었다. 부부갈등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간접적인 효과는 확인된 것으로 보아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of social support, marital conflict, self-efficacy,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which are known as affecting mothers' parenting behaviors of infants a lot. To this study, We used of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s 「Panel Survey of Korea Child; 2009」 data. The subjects of mothers of 11~18 months infants 1,467(M=739, F=728). In order to analyze collected data, Person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path analysis were us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s among social support, marital conflict, self-efficacy,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were between -.475 and .401, which are all significant on the level of within $p < .01$. Of thos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 of self-efficacy,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was shown highest as of -.475. Second, the correlations among these variables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of infants were between -.484 and .350(all, $p < .01$). Mothers' parenting stress shows the highest correlations of all, next social support, self-efficacy, marital conflict in order. Third, multiple-correlation of .533, which explains at 28.4 percentage of total variance of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396 in the degree of mothers' parenting stress, which explains at 15.7 percentage of the total variance of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s, while .223 in social support(4.97%). But marital conflict has not direct effects but indirect effects.

Key Word : Social support, Marital conflict, Self-efficacy, Mothers' parenting stress, Mothers' parenting behaviors

*Corresponding Author : Kim, Jong-Han

Tel: +82-10-3485-6459 email: happyman1052@hanmail.net

접수일 12년 08월 23일

수정일 (1차 12년 08월 31일, 2차 12년 09월 05일)

계재확정일 12년 09월 06일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출생부터 만 2세까지 영아기는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경이로운 시기이다. 이 시기의 영아는 급격히 신체적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정서적으로는 부모나 자신을 돌보아주는 대상에 애착심을 갖게 되며,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점차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인간 성장 발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 뿌리가 형성되는 시기이다[1]. 더욱이 영아기는 자신의 욕구 및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적으로 양육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시기이다. 영아들은 목적으로 하는 바를 달성하는데 서투르며 상대적으로 무능하다. 즉, 영아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그들의 통제권 밖에 있기 때문에 성인의 사랑과 지원이 필수적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아의 보호와 양육에 있어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역할은 유아나 아동을 양육할 때 보다 더욱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2-3]. 영아기 양육활동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기 위해 요구되는 적절한 보살핌과 애정 어린 협력을 제공하려는 노력으로써 대부분 어머니가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연실(2010)은 영아의 발달에 있어서 가족구성원과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특성이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 하면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지원, 부부갈등,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양육 신념, 양육 지식, 영아 성 등이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었지만[4-6], 최근에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생태학적 관점과 전 생애적 관점이 강조되면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체계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 핵가족체제에서 가족시스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부관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7]. 이승미와 김희진(2005)은 사회적지원과 양육효능감, 자녀 양육행동과 자녀 성취결과와의 관계를 밝히면서 어머니의 자녀 양육행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근본적으로 적절한 사회적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임현주, 최향준, 최선녀(2012)는 사회적지원을 받은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영아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박성연과 임희수(2000)는 부부관계의 질과 양육행동과의 관계에서 배우자는 주요한 사회적지원체계가 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부부관계가 원만하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반면, 부부관계가 불만족스러우면 자녀양육에도 소홀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며, 사회적지원이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이 나타났다[8].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특히, 많은 연구에서 양육행동의 주요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과보호 행동과는 정적 상관을, 지지적인 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자녀에게 과보호적인 행동을 보이며 지지적인 양육행동은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8-9], 김미정(2010)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할수록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보이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갖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10],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11], Teti & Gelfand(1991)는 높은 자기효능감을 지닌 어머니는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낮은 자기효능감을 지닌 어머니는 자녀에게 냉담한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요인 중 사회적지원, 핵가족체제에서 사회적지원의 핵을 이루는 부부갈등, 그리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자기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유아기나 학령기 아동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어머니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영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미흡하다[12]. 영아기는 발달의 급성장을 보이며 발달의 기초가 되는 시기로 생애의 어느 시기보다 양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13], 영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겠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이러한 변인들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연구하였을 뿐 아니라 주로 각각 변인별 상관을 구하였을 뿐 이들 변인들간의 통합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이들 변인들이 양육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지원, 부부갈등,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지원, 부부갈등,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들 변인이 양육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 지원

일반적으로 사회적지원이란 타인들에 의해 제공된 자

원을 일컫는 총체적인 말로써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감정의 표현, 타인의 행동이나 지각의 인정, 타인에 대한 상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의 제공 중 하나 그 이상을 포함한 대인 관계적 거래를 통하여 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14]. 이유나(2009)에 의하면 사회적인 지원은 온정과 격려, 양육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과보호와 허용, 거부와 방임 양육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Nair & Murray(2005)는 사회적지원이 적은 이혼모는 양육스타일의 중재적 영향을 받아 아동들이 느끼는 애정의 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Edward(2010)도 사회적지원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취약한 아동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나, Respler-Herman, Mowder, Yasik, & Shamah(2012)는 지각된 사회적 지원이 양육신념과 상관이 없다는 보고를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일반적으로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정신적인 지원이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양육경험이 많은 사람 또는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지지하거나 칭찬을 한다면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머니의 효능감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양육 기술과 행동은 향상 될 것이다 [15-16].

Suzuki, Holloway, Yamamoto & Mindnich(2009)의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긍정적인 부모의 지원을 경험한 어머니와 양육에 대한 친구의 지원을 받은 어머니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지원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7], 아이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회적지원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매우 크게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4, 18-20].

이러한 효능감과 사회적지원은 결국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김현미(2006)는 배우자나 친척 등의 사회적지원이 결여될 경우 일상적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차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부모 자신의 심리적 건강과 자녀와의 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으며, 송미혜(2006)도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인 지지는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훈육능력, 자녀와의 의사소통 능력에서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으며, Upshur(1994)도 양육에 대한 정보와 지원이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지원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여 지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느끼는 긍정적이고 격려적인 정서적인 지원에 대한 만족감은 양육

효능감과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사회적지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자기효능감은 강화되어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연결 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2 부부갈등

부부갈등이란 부부가 자녀 양육 활동을 하는데 있어 빈번히 발생하는 의견 충돌이나, 서로의 욕구, 목표, 기대 등의 불일치의 경험, 나아가 어머니가 자녀양육 활동을 하는데 있어 아버지, 즉 배우자가 제공해주는 사회적, 정서적 지지 여부를 포함한 개념이다[21]. 이러한 부부갈등 역시 양육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일반 가정의 어머니들이 생활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의 개념[22]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가족관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부간의 관계는 가장 밀접하고도 지속성이 있는 전인격적인 관계로 볼 수 있으며,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원만할 때 가족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을 때는 가족원 특히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23]. 이러한 부부갈등은 결국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신유경(2011)은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부부갈등은 부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수미, 민하영(2007)은 어머니가 느끼는 부부갈등으로 인해 애정적 양육행동이 낮아지거나 거부적 양육행동이 강화됨으로써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이순옥과 김춘경(2006)은 부부갈등이 부모-자녀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면서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며, 친숙하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였고, Keller, Cummings & Davies(2005)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적응을 잘못하게 하는 등 비효과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Suzuki et al.(2009)은 남편의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증대시킨다고 보아 부부갈등이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부부갈등은 양육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 즉 부정적인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머니에게 양육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양육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는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24-25]. 김재엽과 김희수(2001)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일상 생활만족도와 부부 의사소통의 질은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어머니의 스트레스 정도는 다시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수미와 민하영(2007)의 연구에

서도 배우자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지지의 역할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 또는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배우자의 적절한 양육의 참여와 사회적지원은 부부갈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또한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부부갈등은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Bandura(1977, 1986)에 의하면 자아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판단 및 신념으로 활동의 선택 및 노력의 양과 지속성을 결정하는 변인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얼마나 잘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26]. Bandura, Corno & Mandinach는 자기효능감의 동기요소에 대한 개인차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자기효능감은 활동의 선택, 지속성, 노력,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 효율적이라고 느끼는 개인이 더 쉽게 활동에 종사하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지속성이 있고 목표달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더 높은 수행수준을 세운다고 보았다[27]. 이렇듯 자기효능감은 목표달성을 위한 과제수행에 필요한 동기 및 인지적 원천이며 개인의 인지적 능력 이상으로 개인의 수행을 잘 예언하고 있다. Shea & Coyne(2011)은 어머니의 불쾌감은 양육스트레스를 유발시키며 이는 취학전 아동 양육행동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Costigan & Koryzma(2011)는 양육효능감에 대한 신념을 자녀들의 심리적 적응과 이주민 부모의 양육행동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여 양육에 대한 신념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으며, Yamamoto, Holloway & Suzuki(2006)도 양육효능감과 가족역할에 대한 견고한 생각은 취학전 교육을 선택하거나 가정에서의 읽기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보아 양육효능감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양육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양육행동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2.4 양육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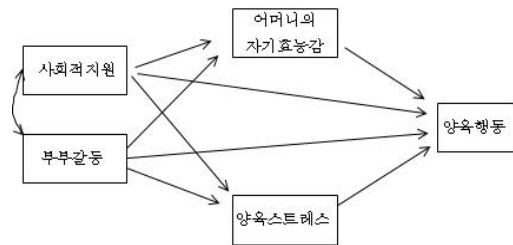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 상태를 위태롭게 하는 환경적 자극 조건인 동시에 개인의 정서 체계, 행동 체계, 생리 체계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특유 반응을 야기한 원인적 행동의 모든 것을 총칭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19]. 이러한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매순간 경험되는 주요한 스트레스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주요 생활사건 만큼 연구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8].

Respler-Herman et al.(2012)은 양육스트레스가 적을수록 긍정적인 양육신념을 갖는다고 하였으며, Shea & Coyne(2011)도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에는 부적인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고, Edward(2010)도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취학전 아동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White, Roosa, Weaver & Nair(2009)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이웃간의 스트레스 그리고 아동의 사회화에 대한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는 양육스트레스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김현미와 도현심(2004)은 어머니가 부모역할을 하는데 고통을 많이 느끼고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어머니는 자녀양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일관된 규제를 하지 못하며, 합리적인 지도를 적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녀에게 합리적으로 지도하며 애정적이고 일관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반면,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권위주의적이거나 과보호하는 양육행동을 한다[28]. 박성연과 Kenneth (2008)도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과보호적인 행동과 지지적인 행동을 예측해주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과보호하며 지지적인 행동은 덜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김미정(2010)은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할수록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권위주의적 통제적인 양육행동과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로 보아 양육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과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2.5 연구모형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부부갈등, 사회적지원,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부부갈등, 사회적지원,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 등이 각기 어떤 관계에 있는가와 이들 각각이 양육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선행연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논리적 분석을 기초로 하여 부부갈등, 사회적지원,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적 인과모형을 그림1처럼 설정하였다.



[그림 1] 부부갈등, 사회적지원,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간의 인과모형

[Fig. 1] Casual-Response Model between Social support, Marital conflict, Self-efficacy,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여 2011년에 공개한 「한국아동패널연구: 2009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패널 대상자는 2009년 1차 심층조사 대상자인 만 1세(11개월에서 18개월까지) 패널 대상자 1,904명 중에서 조사 문항에 모두 응답하지 못한 대상자를 제외하고 1,467명(남아 739명, 여아 728명)에 대한 그들의 어머니 응답을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3.2 측정 도구

3.2.1 사회적지원

사회적지원은 이재림, 옥선화(2001)의 사회적지원 척도와 조병은, 서동은, 신화용, 정현숙(1998)의 사회적지원 척도를 기초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가족, 친구, 이웃 등 대인 관계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총 12개 문항의 5단계 평정적으로 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12~6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사회적지원의 신뢰도는 $\alpha=0.93$ 으로 나타났다.

3.2.2 부부갈등

한국아동패널(PSKC) 연구에 사용된 것은 Markman, Stanley와 Blumberg(1994)의 부부갈등 척도를 정현숙(2004)이 수정·번안한 척도를 질문지의 일관성을 위하여 5점 척도로 수정한 것이다. 이 도구는 어머니가 느끼는 부부갈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척도는 총 8개 문항의 5단계 평정적으로 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8~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갈등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부부갈등의 신뢰도는 $\alpha=0.89$ 로 나타났다.

3.2.3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Pearlin의 자기효능감 척도(The Pearlin Self-Efficacy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로서 총 4개 문항의 5단계 평정적으로 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자기효능감을 의미하므로 역 점수로 환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의 신뢰도는 $\alpha=0.82$ 로 나타났다.

3.2.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을 기초로 김기현과 강희경(1997)가 양육스트레스 척도로 수정·보완한 것 중 한국 아동패널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해당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개 문항의 5단계 평정적으로 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점~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양육스트레스의 신뢰도는 $\alpha=0.85$ 로 나타났다.

3.2.5 양육행동

Bornstein et al.(1996)이 개발한 PSQ(Parental Style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사회적 양육유형을 측정하는 도구로 총 6개 문항의 5단계 평정적으로 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6~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유형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양육행동의 신뢰도는 $\alpha=0.83$ 으로 나타났다.

3.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8.0과 LISREL 8.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인별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분석하였으며, 본격적인 연구결과 분석을 위한 예비단계로 사회적지원, 부부갈등,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의 평균, 표준편차, 단순상관을 산출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사회적지원, 부부갈등,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가능한 인과모형을 탐구하고 각 변인들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해석

4.1 일반적 결과

경로분석에 앞서 결과 분석의 기초가 된 연구변인에 대하여 기본적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지원, 부부갈등, 어머니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적률상관계수
[Table 1] M, SD, Correlation of Social support, Marital conflict, Self-efficacy,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N=1,467

구분	사회적 지원	부부 갈등	자기 효능감	양육스 트레스	양육 행동
사회적 지원	1.00				
부부 갈등	-.271**	1.00			
자기 효능감	.309**	-.474**	1.00		
스트레스	-.277**	.401**	-.475	1.00	
양육 행동	.350**	-.270**	.297**	-.484**	1.00
평균	46.58	16.19	14.84	27.27	23.42
표준 편차	7.58	6.01	2.76	6.35	2.93

**p<.01

표 1에 의하면, 부부갈등, 사회적지원,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 등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은 -.475~.401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육행동과의 상관은 -.484~.350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양육행동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양육스트레스로 -.484이며, 부부갈등이 -.270으로써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4.2 연구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에서 설정된 사회적지원, 부부갈등,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양육행동간의 인과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위해 LISREL분석을 한 결과 NFI=.918, CFI=.918, GFI=.959, AGFI=.389, RMR=.0700으로써 NFI, CFI, GFI와 AGFI는 1에 가까울수록, RMR은 낮을수록 부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29], 이 중 네 개의 기준이 부합도에 합치되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명할 수 있다.

4.3 경로분석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그림 1의 사회적지원, 부부갈등,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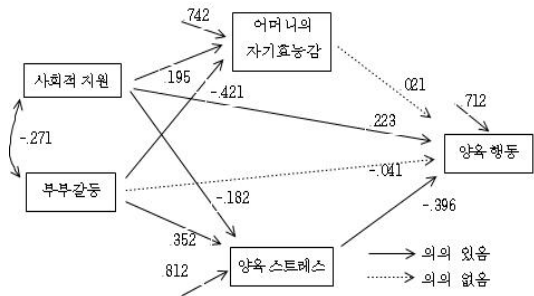
[표 2] 각 변인에 따른 경로분석 결과
[Table 2] Path analysis results of Variables

종속 변인	독립변인	β	총 효과	간접 효과	R ²
효능감	사회적지원	.195***	.195*	--	.260
	부부갈등	-.421***	-.421*	--	
스트레스	사회적지원	-.182***	-.182*	--	.191
	부부갈등	.352***	.352*	--	
양육 행동	사회적지원	.223***	.299*	.076*	.284
	부부갈등	-.041	-.189*	-.148*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021 -.396***	.021 -.396*	-- --	

*p<.05, ***p<.001

표 2에 의하면 양육행동을 종속변인으로 놓고 사회적지원, 부부갈등,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경로분석한 결과 양육스트레스의 β계수가 -.3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지원이 .223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갈등과 자기효능감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변인은 양육행동 변량의 약 28.4%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인 비중은 경로계수로 보아 양육스트레스, 사회적지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갈등과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갈등의 총효과는 -.189이며, 간접효과는 -.148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부부갈등은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변량의 약 17.7%, 양육스트레스 변량의 약 12.4%를 설명하는 변인으로써 이들 변인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아래 그림 2에 표시된 바와 같이,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양육스트레스이며, 그 다음은 사회적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인과모형에서 양육스트레스 변인과 양육행동에 이르는 경로계수는 -.396으로써 양육 행동의 15.68%를 설명하고 있으며, 사회적지원은 경로계수 .223으로써 양육행동의 4.97%를 설명하고 있다. 반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부부갈등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그림 2] 양육 행동과 관련 변인 간의 경로분석 모형
 [Fig. 2] Path analysis model betwee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Variables

다음으로 외생변인인 사회적지원과 부부갈등의 상관은 -0.271로서 유의 있는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지원은 양육스트레스와는 부적인 영향력이, 양육행동과는 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지원이 강할수록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는 반면, 양육행동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사회적지원과 부부갈등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에 정반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두 외생변인간의 상관이 부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사회적지원과 부부갈등은 결국 양육스트레스에 정반대되는 영향력으로 작용하게 되어 양육스트레스를 상쇄시키거나 아니면 배가시켜 양육행동에도 정반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인 사회적지원,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의 관계와 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사회적지원,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등 양육행동과 관계를 갖고 있는 주요 변인간에 어느 정도의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이들 주요변인간 상관계수는 -0.475 ~ 0.401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높은 상관은 자기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간의 -0.475였으며, 그 다음은 자기효능감과 부부갈등의 -0.474였다. 가장 낮은 상관은 사회적지원과 부부갈등간의 -0.271이었다. 그리고, 사회적지원과 자기효능감,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처럼 사회적지원과 자기효능감,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간의 정적 상관이 나타난 것은 남재희(2005), 이윤진(2007), 최

형성(2002), 이주리와 이종인(2008), 김재엽과 김희수(2001), Suzuki et al.(2009), Abidin(1992)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사회적지원과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과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과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간 부적 상관이 나타난 것은 김현미(2006), Jackson & Huang(2000), Upshur(1994), Belcher et al.(2007), Suzuki(2010), White et al.(2009)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이들 주요 변인과 양육행동과의 상관은 -0.484 ~ 0.350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양육행동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양육스트레스로 -0.484이며, 부부갈등이 -0.270으로써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것들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결과는 백영숙(2007), 김현미와 도현심(2004), 이순옥과 김춘경(2006), Shea & Coyne(2011), Respler-Herman et al.(2012), Suzuki et al.(2009), Keller et al.(2005), Edwards(2010)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양육행동과 사회적지원, 자기효능감과는 정적인 상관이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승미와 김희진(2005), 최선녀(2012), 이유나(2009), 박성연과 Kenneth (2008), Yamamoto et al.(2006), Shea & Coyne(2011), Costigan & Koryzma(2011), Nair & Murray(2005)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주요변인들이 양육행동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경로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첫째, 양육행동 변량의 약 28.4%를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변인별로는 양육스트레스가 경로계수 -0.396으로 전체 양육행동 변량의 약 16%를 설명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회적지원이 경로계수 0.223으로 약 5%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갈등과 자기효능감은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양육스트레스에 사회적지원이 약 3.3%의 부정적 영향을, 부부갈등은 약 12.4%의 긍정적 영향을 주어, 양육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부부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이 가장 큰(부정적으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윤지원과 조현아(2011)의 회귀계수 -0.156, 이인학, 박지은, 최성열(2010)의 회귀계수 -0.406, 이경선(2011)의 회귀계수 -0.279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가장 많이 영향을 준 양육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다른 변인이 양육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결과는 찾아볼 수 없어 논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부부갈등은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지만 약 2.19%의 간접효과를 가지고 있어,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부부갈등은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양육스트레스에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주리와 이종인(2008), Abidin(1992), 김재엽과 김희수(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사회적지원은 긍정적으로, 양육스트레스는 부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명되어 지고 그 중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강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여 주기 위해 가족과 친지들의 사회적지원과 남편과의 갈등해소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들을 잘 관리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중요하다.

이상의 결론 및 논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해 살펴보는데 국한되었지만, 영아기의 특징적인 면을 더욱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아기 어머니와의 차이, 또는 영유아의 성별에 따른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영아기의 양육행동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탐구한 경로분석에 의하면 사회적지원, 부부갈등, 어머니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을 29%밖에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외재적 변인의 설명력이 71.2%로 나타나, 이 논문에서 밝혀지지 않은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환경에 영향을 주는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영아의 개인적 특성, 부모의 성격, 우울증, 원가족에서 겪은 발달적 경험과 같은 부모의 특성, 그리고 가족 소득, 취업유무, 남편의 양육참여 등과 같은 맥락적 특성의 또 다른 외생변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포함한 모형의 개발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Reference

- [1] Lee Ki-Sook, Jang Young-Hee, Jung Mi-Ra, Ohm(2003). *The Introduction of Childhood Education*. Seoul:YangSeWon.
- [2] Kim, Young-Ok(2007). Parent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KoYang:KongDonChe.
- [3] Moon Young-Kyung, Min Hyun-Suk(2012). The effects of infants's temperament, development,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infant mother's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1(1), 59-70.
- [4] Choi Hyung-Sung(2002). Effects of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stress, and child's temperament on mother's parenting self - efficacy.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 [5] An, Ji-Young(2000).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IWha Women' University.
- [6] Lee, Kyong-A(2009). Influence of Maternal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Stress and Self-efficacy on Infact Development.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KyeongHee University.
- [7] Lee Jung-Sun(2010). Parenting Behavior, Preschooler's Behavior and Preschooler's Emotionally Unstable Behavior: Relationship to Husband-wife Relationship.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nd Review*, 14(3), 37-56.
- [8] Park Seong-Yeon, Kenneth H. R.(2008).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Toddler Behavior Assessment Questionnaire in Korean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8(5), 55-72.
- [9] Jang Jong-Oh, Kim Yong-Mi(2011). Effects of Maternal Rearing Stress and Burnout on their Parenting Self-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Waldorf Education*, 3(1), 91-111.
- [10] Bek Young-Suk(2007). The effect stress and guilt of mothers in raising children have in their attitude of raising childre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11] Jackson, A. P. & Huang, C. C.(2000). Parenting stress and behavior among single mothers of preschoolers: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26(4), 29-42.
- [12] Kim Eun-Jin, Park Seong-Yeon, Lim Hee-Su(2009). The Effects of Child Gender and Temperament, Husbands` Support, and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o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toward Toddl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9), 71-82.
- [13] Bornstein, H. M.(2002). Handbook of parenting. In M. N. Bornstein(ed.). *Parenting infants(2nd ed)*, 1, 3-43.
- [14] Lee Ju-Young(200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 toward children of low-income class and children'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ate:comparison of self-care children and adult-care

- childre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 [15] Nam Jae-Hee(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of mother's parent-efficacy, parenting style and Adolescence's self-regulation abilit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16] Lee Youn-Jin(2007).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and young child temperament on the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uman Life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
- [17] Choi Hyung-Sung(2005a). The Mediation Role of Korean Boys's and Girls's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The Causal Relations Model of Parenting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2(4), 121-137.
- [18] Moon Hyuk-Jun(2005). Predictors of Parent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5), 139-149.
- [19] Yang Jung-Hwa(2002). The influence of husband's cooperation and mother's efficacy on the Parenting stres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Won University.
- [20] Shapiro, J. R., & Mangelsdorf, S. C(199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competence in adolescent mothe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6), 621-641.
- [21] Ye Nam-Hee(2010). The Effects of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Conflic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22] Min Ha-Yeoung, Kim, Kyeong-Hwa(2005). Characteristics of Mothers' Coping with Marital Conflict and Child-Rearing Stres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4), 27-34.
- [23] Kim Hyun-Jung(2002). A study on child abuse influence by family relationship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Daegu University.
- [24] Lee Ju-Lie, Lee Jong-In(2008). (Maternal acceptance-rejection, parenting stress and mother's perceived childhood treatment: Focused on moderating effects of mother's perceived childhood treatment.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2(2), 17-27.
- [25] Abidin, R. R.(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 401-412.
- [26] Kim Jong-Han(2001). Relationships of Self-esteem, Self-efficacy, Learning Attitude, and Subject Fondness in Academic Achievement at High School Level:A Regression Analysi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9(4), 349-366.
- [27] Kim Jong-Han ed.(2011). *ET KimInSik Pedagogy(Vol. 2)*. Seoul:PakMunGak Co.
- [28] Kim, Mi-Sook, Moon, Hyuk-Jun(2005).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s in Mother with Young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8), 25-35.
- [29] Kwon Young-Hwoon(2009). *Statistical analysis for SPSS & LISREL*. KyongNam University Pu.
- [30] Baek Jong-Hwa(2001). The Use of Internet of Mothers as Related to Maternal Efficac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Iwha Women's University.
- [31] Bandur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intice Hall.
- [32] Bandura, A.(1977). Self-efficacy: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33] Belcher, H. M. E., Watkins, K., Johnson, E., Ialongo, N.(2007). Early head start: Factors associated with caregiver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ing stress. *NHSA Dialog*, 10(1). 6-19.
- [34] Choi Hyung-Sung(2005b). The Mediation Role of Korea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The Causal Relations Model of Paren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6), 351-365.
- [35] Costigan, C. L., Koryzma, C. M.(2011).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among immigrant chinese parents: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2), 183-196.
- [36] Edwards, N. M.(2010). The Maternal role in promoting emotional competence: Predicting head start mothers' expressiveness, perceived role, and receptivity to support. ERIC #: ED521789
- [37] Keller, P. S., Cummings, E. M., Davies, P. T.(2005). The role of marital discord and parenting in relations between parental problem drinking and child adjust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9), 943-951.
- [38] Kim Hyun-Mi(2006). The Relations among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Mothering Stress and Social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Woman's University.
- [39] Kim Hyun-Mi, Do Hyun-Sim(2004).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Korean*

- Journal of Child Studies*, 25(6), 279-298.
- [40] Kim Jae-Yop, Kim Hee-Soo(2001). The Influence of the Satisfaction of Couple Life, Communication, and the Level of Stress on Battering Chil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5, 105-125.
- [41] Kim Mi-Jung(2010). The Effects of Toddler's Temperament,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Efficacy on Maternal Parenting Behavior.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A University.
- [42] Lee Gyeong-Seon(2011). Exploring Variables Related to Parental Style of Infant's Mother.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8(3), 127-145.
- [43] Lee Seung-Mi, Kim Hee-Jin(2005).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Social Support, Parenting-Efficacy, and Aspirations for their Child's Attain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1), 17-33.
- [44] Lee Soon-Wook, Kim Choon-Kyung(2006).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s Social Relationship.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10), 101-108.
- [45] Lee Su-Mi, Min Ha-Yeoung(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temperament,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mother's child-rearing stres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6(2), 219-225.
- [46] Lee Yon-Sil(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Style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 26(3), 63-90.
- [47] Lee Yoy-Na(2009). Impacts of social support, Job satisfaction and role conflicts on parenting in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 [48] Lim Hyun-Ju, Choi Hang Jun, Choi Seon-Nyeo(2012).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f Friends and Relatives, Couple's Characteristics, and Mother's Parenting Characteristics upon Infant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3(2), 91-109.
- [49] Nair, H., Murray, A. D.(2005). Predictors of attachment security in preschool children from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6(3), 245-263.
- [50] Park Seong-Yeon Lim Hee-Su(2000). Attachment Representation and Marital Support as Predictors of a Mother's Parenting.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1(1), 59-72.
- [51] Respler-Herman, M., Mowder, B. A., Yasik, A. E., Shamah, R.(2012). Parenting beliefs, parental stress, and social support relationship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2), 190-198.
- [52] Shea, S. E., Coyne, L. W.(2011). Maternal dysphoric mood, stress, and parenting practices in mothers of head start preschoolers: The role of experiential avoidance. *Child & Family Behavior Therapy*, 33(3), 231-247.
- [53] Sin You-Kyung(2011). Factors Affecting Postpartum Depression:Focusing on Self Efficacy, Marital Conflicts and Prenatal Depress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angMyung University.
- [54] Song Mi-Hye(2006). The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self-efficacy in mothers preschool childre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Ulsan University.
- [55] Suzuki, S., Holloway, S. D., Yamamoto, Y., Mindnich, J. D.(2009). Parenting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Issues*, 30(11), 1505-1526.
- [56] Teti, D. M. & Gelfand, D. M.(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r: The medit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57] Upshur, C. C.(1994). Differences in family participation in early intervention services. ERIC #: ED376658.
- [58] White, R. M. B., Roosa, M. W., Weaver, S. R., Nair, R. L.(2009). Cultural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parenting in Mex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1), 61-79.
- [59] Yamamoto, Y., Holloway, S. D., Suzuki, S.(2006). Maternal involvement in preschool children's education in Japan: Relation to parenting beliefs and socioeconomic statu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1(3). 332-346.

김종한(Kim Jong-Han)

[정회원]



- 1991년 2월 :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1998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1987년 9월 ~ 2000년 7월 : 대전시내 관내 중등학교교사
- 2005년 9월 ~ 현재 :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교육심리, 교육평가, 교육과정, 부모교육, 영유아교육